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저 장미꽃 위에 이슬(499) 주 음성 외에는(500)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36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상안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룻기 1:1-5	인 도 자
설 교	절망 가운데 남겨두신 소망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542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남영아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성경공부	오후 1시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교사역	서정길 권사 안찬호 성도
양육사역	윤지호 집사 서새롬 학생
친교사역	정순영 집사 최정아 성도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7월 8일 제49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PARSONAGE: 6584 DISCOVERY ST. E FIFE WA 98424
TEL (253)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CM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룻기서는 성경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 이야기로 알려진 룻기는 알려진 것과 달리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시작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불행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나오미와 룻이 경험한 고통과 아픔이 컸기에 저들이 나눈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아름다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 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간단한 구절을 통해 성경은 당시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정치적 혼돈과 종교적 방황의 시대인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란과 흉년의 위기에 혼란을 피해, 흉년을 피해 도망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다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 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늘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으며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었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과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직면하여 이기려 하지 않고 먼저 도망하고 피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약속받은 형통함은 모든 일이 아무런 걱정도 위기도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형통함은 위기도 실패도 좌절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위기도 실패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찾아오자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서 도피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제에서 도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흉년을 피해 도망한 엘레멜렉의 가정에 비극적인 재앙이 반복됩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극적 상황에서도 그 가정을 향해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 비극적 사건 속에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 "남았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3절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물론 남았다는 것이 남편이 떠나고, 아들들이 떠난 뒤에, 아무 대책 없이 남겨진 더 비극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와 남았더라는 반복에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남아 있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첫 출발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있습니다. 룻기는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 저들의 가정에 닥친 비극적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속하게만 들리는 그래도 "남은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다 잃어 버려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남았는가 묻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아뢰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흉년의 위기와 상실의 아픔을 통과하게 됩니다.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닫힌 문, 잃어버린 것, 떠나 버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열릴 문,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남겨진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의 어떠한 흉년과 절망이라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습관과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합시다.**
2. **지난 주 교단가입에 관한 회의 결과 기독교대한감리회(KMC)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중으로 교단가입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3. **교단가입에 앞서 교회조직을 갖추기 위해 서정길 권사를 신천장로로 김갑년 집사, 남영아 집사를 명예권사로 안찬호 성도, 안미나 성도, 박선영 성도를 신천 집사로 추천하였습니다.**
4. **남관희 집사님이 Cabinet 2개를 헌물하셨습니다.**
5. **오늘 오후 5시부터 흥사단 청소년 교육세미나가 UW 정원삼 교수를 모시고 이 자리에서 개최됩니다.**
6. **다음주부터 Kaitlan Hronek양이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515.00	
감사헌금:	$400.00	
주일헌금:	$35.00	
특별헌금:	$110.00	**합 계: $1,060.00**

중보기도 제목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선원선교 사역자들을 복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저들을 통해 선원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